

도쿄올림픽 개막식 무관중으로 열릴 듯

日 코로나 상황 급속도로 악화 수도권 긴급사태 연장 불가피 모든 경기 무관중 개최도 검토

일본 정부가 7일 도쿄 등에 적용 중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저녁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각료들과 도쿄 등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이하 중점조치) 연장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논의에서 정해진 내용은 8일 열리는 전문가 분과회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스가 총리와 관계 각료들은 도쿄와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가나가와(神奈川県) 등 수도권 1도(都)·3현(縣)을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시한으로 돼 있는 중점조치를 한 달가량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점조치를 한 달 연장할 경우 도쿄올림픽이 폐

막하는 내달 8일까지 특별 방역 대책이 적용되는 셈이 된다.

중점조치 적용 지역인 오사카부(府)는 이날 중앙정부에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도쿄, 오사카를 포함한 전국 10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발표한 3차 긴급사태를 오기나와(沖繩)를 제외한 나머지 9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해제하면서 도쿄 등 7개 지역에는 긴급사태에 준하는 중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점조치 적용 지역은 기존의 수도권 3현을 포함해 총 10곳이 됐다.

그러나 일본에선 가장 강도가 높은 방역대책인 긴급사태 해제를 계기로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6일) 593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117명이나 급증했다.

1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한 수치로는 17일 연속으로 증가하며 다시 긴급사태 상황을 맞고 있다.

애초 이달 11일까지가 적용 시한인 중점조치가 연장되는 쪽으로 가다가 잡합에 따라 오는 23일 개최식이 예정된 도쿄올림픽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

회, 도쿄도(都)는 지난달 2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개최한 올림픽 5차 회의에서 경기장당 수용 정원의 50% 범위에서 최대 1만 명까지 국내 관람객 입장을 허용키로 하면서 이달 12일 이후로도 긴급사태나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무관중 개최를 포함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림픽 5차는 8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점조치 연장이 공식 결정된 뒤 제한적으로 받기로 한 관중 문제를 다시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경기만을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일본 정부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사실상 유관중 개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한 간부는 지난 4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여당 측이 패배한 배경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과학적으로는 일부 무관중이 바람직하지만 더는 정치적으로 버티지 못한다"고 말해 무관중 개최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일 강경·윤석열 외교역량 미지수”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년 한국 대선을 향한 경쟁이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이 일찍부터 특정 주자에 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일본 일간지 중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젊은이들의 지지는 어디로 향할까”라는 제목으로 7일 지면에 실은 사실에서 여야 주요 대선 주자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논평했다. 요미우리는 이 지사를 “좌파 여당 진영”의 주자로 분류하고서 “대일 강경 자세에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는 차기위진 한일 관계의 재건을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싶다”면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사이트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들어간 일본 지도가 실린 것을 문제시하고, 대외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 지사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이어 “화제를 만들거나 인기를 노린 과격한 발언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요미우리는 윤 전 검찰총장을 ‘보수계’로 규정하고 그가 주목받는 이유나 향후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신문은 윤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및 검찰 개혁을 둘러싼 문재인 정권과의 대립으로 사임했다고 소개하고서 그의 인기가 높은 것은 “정권이나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나 개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윤 전 검찰총장이 “경제·외교 역량은 미지수다. 대통령을 목표로 할 만한 식견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 40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가 정치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서 “현재 상태에 불만을 품은 젊은이들에게는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며 선거의 행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취임과 관련해서는 “젊은 대표를 앉힌 것만으로 재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북한의 위협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통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가 정권 담당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벌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중 대북특별대표 첫 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미 국무부 “대북정책 중 역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대북문제 담당 대표가 6일 전화로 처음 접촉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

류 대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뒤 기존의 ‘쌍궤병진’(雙軌並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류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사를 중시하고 남북화해 협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김 대표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조

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성 김 대표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따로 발표할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에게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등 이전에도 중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가 홀로 떠맡거나 대응할 도전과제가 아니다”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 발맞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서 중국은 분명 북한 정권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만달레이 쿠데타 규탄 시위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7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주먹손을 치켜들며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의 폭력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군부 압박에 국제사회가 단합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필요하다면 북한에 백신 등 제공 준비”

“지원 용의 복에 여러 차례 전달”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타스통신이 7일 보도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우리 대사관을 통한 북한 지도부 대표들과의 접촉에서 우리는 만약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이것은 물론 백신, 의료 장비를 포함한다”며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은 우리의 이웃인 북한에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다만 “우리는 북한 내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사례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1년 넘게 국경 봉쇄 조치를 해온 북한은 대외적으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장기화 대책과 관련해 일부 간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큰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 “한반도 안보 위해 작전 강화 모색”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상호작전 운영성과 능력을 강화할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발사 시험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커비 대변인은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매우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동맹에 대한 안

보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동맹이 전장과 함대에 투입할 상호작전운영성과 능력을 향상하고 강화할 방법을 항상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SLBM 수직발사대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3천(급 중형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이르면 이달 중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중 발사 시험이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졌다. 우리 군은 작년 말 이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도초섬 내, 시세 9억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상담문의. 010-3605-5000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모십니다

▶ H. 010-2928-0202

오피스텔 부지, 급매

- ▶ 광주광역시,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매 - 23억(평당1300만원)

주식회사 미르. 010-3605-5000